



7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분관 전시실에서 조천호씨의 사진을 모티브로 그림을 그린 헨케씨가 조씨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당신이 사진속 꼬마 상주...”

### 獨 여류화가 광주 전시회서 뜻깊은 만남

7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광주시립미술관 상록분관 전시실에서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5·18 꼬마 상주’ 조천호(34·광주시청 공무원)씨의 독일 여류작가 헨케 라이나츠 안네그레테(Henke Reinarz Annegrete·70)가 주인공이다.

이번 만남은 이곳에서 열리는 ‘독일에서 온 편지’전(9일~11월8일)에 ‘조씨 사진’을 형상화한 작품을 출품한 헨케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진 아버지의 영정을 든 ‘5살 상주’를 만나고 싶어하였다.

이제는 30대 청년으로 훌쩍 자란 ‘꼬마’가 기특한지 헨케씨는 조씨를 만나자마자 부둥켜 안았다.

헨케씨는 “1988년 관화가 홍성담씨를 통해 꼬마 상주의 ‘사진’을 본 뒤 슬픈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다”면서 “꼬마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화사한 빛깔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잘 컸다니 너무 기쁘다”고 감격스런 표정을 지었다. 지난 2006년 결혼해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조씨이지만 헨케씨의 눈에는 5살 꼬마상주의 모습이 남아있는 듯했다.

조씨도 그녀의 작품 ‘한 아이의 슬픔’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아픔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치유의 힘이 느껴진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 간첩조작사건 휘말린

#### 홍성담씨 구명운동도

#### “다신 이런 아픔 없어야”

지난 80년 외신기자가 찍은 꼬마 상주의 사진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있지만 ‘한 아이의 슬픔’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지워져 있다.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꼬마의 슬픈 얼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헨케씨의 그림 설명을 듣고 있던 조씨는 가슴이 북받치는 듯 눈물을 흘렸다.

독재와 전쟁은 두 사람에게서 소중한 아버지를 앗아갔다. 헨케씨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버지를 잃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 없는 슬픔을 견뎌야 했던 헨케씨에게 조씨의 사진은 창작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헨케씨가 조씨의 사진을 알게 된 것은 지난 1988년 독일에서 열린 홍성담씨의 전시회를 통해서였다. 당시 전시회 오픈식에서 홍씨로부터 80년

5월항쟁과 ‘조씨 사진’을 접한 그녀는 큰 충격과 함께 동병상련을 느꼈다.

그녀와 주변의 독일인들은 홍씨에게 여행경비로 5천마르크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 돈으로 인해 홍씨가 이른바 ‘홍성담 간첩조작사건’에 휘말리자 그녀는 독일에서 구명운동을 펼쳤다. 또 지난 1990년에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법정에서 홍씨의 무죄를 증언하기도 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세계에 알린 사진 속의 주인공 조씨는 정작 이 사진을 좋아하지 않았다. 지난 1987년 우연히 이 사진을 본 할머니가 충격으로 숨을 거뒀고, 매년 5·18만 되면 쇠도하는 인터뷰 요청에 과거의 아픔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조씨는 “과거를 잊으려고만 했는데, 슬픔을 알려 또 다른 슬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쓰는 헨케씨의 모습을 차 세계대전 당시 아버지를 잃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 없는 슬픔을 견뎌야 했던 헨케씨에게 조씨의 사진은 창작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30분간의 짧은 만남을 가진 이들은 “다시는 ‘이유없이’ 아버지를 잃는 아 이들이 없기를 바란다”며 한동안 손을 놓지 않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해남서 구아바, 여수바다엔 열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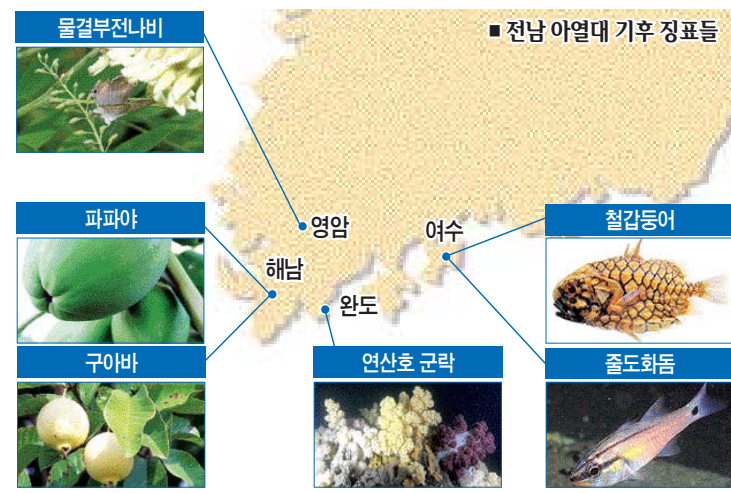
### 전남 아열대 징표 곳곳 포착

지난달 16일 여수 앞바다에서 제주도를 비롯한 아열대 기후에서 서식하는 줄도화돔이 처음 관찰됐다. 앞서 월출산에서는 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물결부전나비가 발견, 이미 토착종으로 자리잡은 사실이 처음 확인되는 등 전남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는 징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열대화 새로운 징표=아열대 기후에서 서식하는 어류나 농작물, 나비 등이 전남지역에서 속속 관찰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섬체만 관찰됐던 물결부전나비의 산란 과정이 영암군 월출산국립공원에서 최근 관찰됐다. 이는 물결부전나비가 완전히 우리나라 토착종으로 바뀌었음을 처음 확인한 사례로, 한반도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아열대 기후에서 서식하는 남방계 곤충이 북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설명했다.

아열대 어류는 이미 여수 등 남해안에서 쉽게 관찰되고 있다.

전남해양수산과학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아열대 어류로 분류되



는 줄도화돔 10여마리가 처음 채집됐다. 여수 앞바다에서는 5년 전부터 아열대 어류인 독가시치, 철갑동어, 정줄돔, 자리돔 등 10여 종이 꾸준히 채집되고 있다. 전남해양수산과학관 정현호 연구사는 “여수 등 전남 해안은 오래전부터 아열대화 기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제주도에서만 관찰됐

던 연산호 군락이 최근 완도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농업분야에서도 변화는 관측된다. 기온이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전남지역에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잇따르고 있다. 해남군 2개 농가는 올 봄 처음으로 아열대 과일인 파파야 재배(3천㎡ 규모)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16일부터 출하

가 시작했다. 아열대 과일인 구아바도 올 봄부터 시험재배(1천㎡)에 들어갔으며, 3년 뒤부터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해남군은 보고 있다.

◇전남은 이미 아열대? =기상청 기후변화감시센터는 최근 목포와 여수, 부산 등 남해안 지역을 아열대 기후로 새롭게 분류했다. 아열대 기후는 열대기후와 온대기후의 중간에 해당하는 기후로, 여름은 무덥고 겨울은 따뜻한 게 특징이다.

지역적으로는 중국 화남지방, 일본 큐슈 등이 해당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분류된 제주도와 함께 남해안 지역이 최근 아열대 기후로 포함됐다.

아열대 기후는 한 달 평균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적어도 8개월 이상인 지역으로 강수량과 증발량, 일조량을 비롯한 기상요소와 식생분포 등을 감안해 구분하고 있다.

기상청기후변화감시센터에 따르면 전남지역 등 한반도 남쪽지방이 아열대화되면서 불꽃 개화시기가 빨라지는가 하면 사과를 비롯한 농작물의 분포도 점차 북상하는 추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양만권 통합 무산되나

### 여수시장 “광양빠지면 무의미” 논의 중단 선언

여수·순천·광양 3개 시 통합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7일 “광양시가 빠진 상태에서 통합 논의는 의미가 없다”며 통합 논의의 중단과 통합 논의의 기구 해산을 순천시에 공식 통보했다.

오 시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여수, 순천시만의 통합은 불가하다”며 “반드시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 통합을 원칙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광양만권 통합에 적극 나선 것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들의 염원에 따른 것”이라며 “당초 시작한 통합 논의는 3시의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시장은 일부에서 여수와 순천시가 광양시를 빼고 통합을 합의한 양 사실을 예견해 이를 정지 쟁점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광양시가 통합 논의에 불참의사를 공식적으로 분명히 밝힌 상태에서 통합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이미 순천시에 통합 논의의 중단과 통합 논의의 기구 해산을 통보한 상태에서 이를 악용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향후 통합 논의는 철저히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해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알림

### 제5회 광주일보 문학상 공모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한 ‘광주일보 문학상’이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합니다. 응모작품은 미발표 신작 또는 최근 1년 내 발표한 작품이면 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학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작품 공모 및 시상 요강

- 응모 대상 =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작가
- 공모 분야 = 시·동시, 소설, 동화, 평론, 희곡
- 대상 작품 = 신작 원고 및 최근 1년 (2008년 10월 1일~2009년 9월 30일)내 발표 작품
- 상금 = 300만원
- 원고 마감 = 2009년 10월 30일
- 제출할 곳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 ‘광주일보 문학상’ 담당자 앞 또는 이메일 bigkim@kwangju.co.kr

光州日報社

